

대림 제 3 주일:

2016 년 12 월 11 일 (다해)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45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93 )	봉헌 ( 512 )	성체 (153 )	파견 ( 91 )
<p><b>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b></p> <p><b>1 구역:</b>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p> <p><b>2 구역:</b>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p> <p><b>3 구역:</b>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올리안나.</p> <p><b>4 구역:</b> 김 유스티나( 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릿다,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p>		<p><b>성소를 위한 기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li> <li>●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li> <li>○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li> <li>●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li> <li>○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li> <li>●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li> <li>◎ 아멘.</li> </ul>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11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18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2/25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1/1/17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8/17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1/27/16	\$236	\$60	\$600

한인 공동체 크리스마스 디너

성탄 전야 미사후에 구 친교실에서 있었습니다. 저녁은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케이터링으로 하였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과 친지를 떠나, 외롭게 지내시는분들과 함께 참석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곳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주님의 선택

박 마리 미셀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구관구 몽골리아 선교)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관구장님의 목소리인데... “수녀님, 몽골에 가야겠습니다.” 저는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지만 순간적으로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 답입니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미지의 나라 몽골. 아주 추운 나라. 소련의 붕괴로 인해 공산주의 나라에서 막 독립된 나라. 그곳에 제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002년 2월 28일. 몽골에 도착하자 공항에는 주교님과 그의 비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몽골 분원 수녀들도 함께와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수녀들은 다음날, 관광을 시켜 주겠다고 그 엄동설한에 김밥과 라면, 휴대용 가스렌지 등을 준비하여 국립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몹시 추웠지만 새하얗게 눈으로 덮인 설경과 깨끗한 자연은 저를 즉시 매료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곳 수녀들은 1996년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와 바양호쇼, 존모드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과 어린이집을 열고, 방과 전후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고, 가난한 이들도 돕고 있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 주님의 성탄일을 공휴일로 지내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계속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줄 식빵을 사러 가게로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몽골의 지형을 모르는 저는 경사진 골목길에 눈이 쌓이고, 쌓인 눈이 얼고, 또 얼음에 덮인 눈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낙상하여 오른손 팔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듯이,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한국인 정형외과 박사님이 계신 몽골 친선 연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로 오셔서 무사히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소식

X- Mas 합창단 공연-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센클라멘데 어린이 합창단과 베이커스필드 한아름 합창단이 성탄절 맞아,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저희 성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티켓은 \$10 입니다.

한인 공동체 임원회의;12/11/16. 오후:7시

한인 공동체 임원회의가 12월 11일 오후: 7시에 사제관에서 있었습니다. 임원분들께서는 참석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성탄전야 미사

오후 6시에 히스패닉 공동체와 함께, 구유예절이 시작되겠으며, 아기 예수님 축성식도 있습니다. 성탄절 미사는, 12월 25일, 일요일, 오전 9시, 주일 미사와 함께 있습니다.

고백 성사; 주중, 또는 주일미사 30분전

고백 성사는 주중이나, 주일미사 30분전에 있사오니, 양지하시어,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송년의 밤 - 12월 11일, 오후:6시

2016년도 한인회 송년의밤은 Panda Palace 에서 12월 11일, 일요일, 오후:6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국장; 변창식; 661-444-0356 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내 고국에서처럼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는 있으나 언어와 기후, 풍속과 사고방식, 인간관계 등을 습득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의 뜻과 도우심에 굳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몽골에서 창설자들의 카리스마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방문하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 (1코린 9,22)이 되도록,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하는 선교의 삶은, 나날이 그 고귀함을 더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도 주님이 즐겨 쓰시는 도구로서, 주님의 손안에 든 진흙처럼 살아가고 있음이 저에게 큰 보람입니다.

[교리상식]

‘복사’는 언제부터 생겼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복종하며(服) 섬김(事)’이란 뜻을 지닌 복사(服事)는 사제가 전례를 거행할 때에 곁에서 돕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복사는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 담당하나, 시 종직과 같은 낮은 성직품(소품)은 1973년 전례 개혁 이후에 폐지되고 평신도가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2년에 공적으로 여성들도 복사 직무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복사는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할 수 있습니다.